

韓半島人の 口腔狀態와 口腔醫學

<現代齒科醫術의 流入以前까지>

기창덕 치과의원 원장
가톨릭의과대학 외래교수

의학박사 기 창 덕

IV. 朝鮮時代 非醫書中の 口腔醫學과 口腔狀態

高麗 文宗때부터 宋, 大食國, 南海 여러 나라와 倭商과의 交易은 있었으나 商品의 交流를 위주로 하였고 學術 導入에 있어서는 別途로 學者들의 往來로 極히 特殊한 境遇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¹⁾ 그러나 朝鮮朝에 이르러 宣祖때부터 明나라를 通하여 西洋의 文物이 들어 오면서 實證學도 싹트기 始作하여 醫書의 變革도 漸次 일어났으며 當時 實學의 先鞭을 잡던 선비들이 實學的 思想에 많은 刺戟을 받은 記錄을 남기고 있다.²⁾

이러한 實學思想이 流入되기 始作한 朝鮮時代에 있어서 口腔醫學이 미친 社會의 反應 또는 庶民生活에서의 口腔狀態등을 알아보기에는 醫學에 記錄

되어 있는 醫藥方보다는 非醫書에 記錄되어 있는 口腔醫學이나 또는 生活人の 口腔과의 關聯이 있는 文獻을 찾아 보는 것이 正確한 情報가 될 것으로 믿어 <朝鮮王朝實錄>³⁾ 을 위시하여 <大東野乘>⁴⁾ 에 들어 있는 <慵齋叢話>⁵⁾, <稗官雜記>⁶⁾, <靑坡劇談>⁷⁾, <海東野言>⁸⁾, <己卯錄補遺>⁹⁾, <己丑錄>¹⁰⁾, <海東雜記>¹¹⁾, <再造藩邦志>¹²⁾, <魚侯鯖瑣語>¹³⁾ 등을 뒤져 보았고 <海行摠載>¹⁴⁾, <眉叟記言>¹⁵⁾, <五洲衍文長箋散稿>¹⁶⁾, <熱河日記>¹⁷⁾, <星湖塞說>¹⁸⁾, <靑莊館全書>¹⁹⁾, <谿谷集, 附 谿谷漫筆>²⁰⁾, <二養編>²¹⁾, <壽養叢書類輯>²²⁾, <芝峰類說>²³⁾, <

1) 金庠基 : <海商의 活動과 文物이 交流>新編高麗時代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p. 151-168, 1985. 2) 崔韶子 : <17, 18世紀 漢譯西學書에 대한 研究, -中國과 韓國의 士大夫에게 미친 影響->韓國文化研究院 論叢 第39輯, p. 70-113, 1981. 3)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49冊)1955. 4) 民族文化推進會 : <大東野乘>古典國譯叢書 49-66, 民族文化刊行會, 1985. 5) 成 倪 : <慵齋叢話>大東野乘 I, 8-258. 6) 魚叔權 : <稗官雜記>大東野乘 I, p. 417-554. 7) 李陸 : <靑坡劇談>大東野乘 II, p. 84-133. 8) 許 筠 : <海東野言>大東野乘 II, p. 185-491. 9) 安 瑤 : <己卯錄補遺>大東野乘 III, p. 17-187. 10) 黃 赫 : <己丑錄>大東野乘 IV, p. 335-598. 11) 權 愷 : <海東雜錄>大東野乘 V, p. 23-680. 12) 申 晁 : <再造藩邦誌>大東野乘 IX, p. 3-564. 13) 李濟臣 : <鯖鯖瑣語>大東野乘 XIV, p. 377-457. 14) 申叔舟 : <海行摠載>古典國譯叢書 78-89, 民族文化推進會, 1982. 15) 許 穆 : <眉叟記言>古典國譯叢書 178-183, 民族文化推進會, 1978. 16)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明文堂, 1982. 17) 朴趾源 : <熱河日記>古典國譯叢書 18-19, 民族文化推進會, 1986. 18) 李 滌 : <星湖塞說>古典國譯叢書 107-118, 民族文化推進會, 1986. 19) 李德懋 : <靑莊館全書>古典國譯叢書 184-196, 民族文化推進會, 1982. 20) 張 維 : <谿谷集 附 谿谷漫筆>曹龍承, 1980. 21) 曹 倬 : <二養編>韓國醫學大系 40, p. 1-154, 驪江出版社, 1988. 22) 李昌庭 : <壽養叢書類輯>上揭書 40, p. 155-420. 驪江出版社, 1988. 23) 李晔光 : <芝峰類說>韓國學基本叢書 2, 景仁文化社, 1982.

山林經濟>²⁴⁾, <明南樓叢書>²⁵⁾의 <氣測禮義>²⁶⁾, <人政>²⁷⁾, <身機踐驗>²⁸⁾, 등에서도 찾아 보았다.

또 이 外에 庶民生活에서의 口腔에 關한 關心과 表現을 알아보기 爲하여 <韓國古典文集全書>²⁹⁾에 들어 있는 <兩班傳>³⁰⁾, <金鈴傳>³⁵⁾, <가루지기打令>³²⁾, <裊婢將傳>³³⁾, <토기傳>³⁴⁾, <興夫傳>³⁵⁾, <春香傳>³⁶⁾, <李春風傳>³⁷⁾, <玉丹春傳>³⁸⁾, <詩調篇>³⁹⁾, <歌辭編>⁴⁰⁾ 등에서 口腔이나 齒牙와의 關聯이 있는 句節을 찾아내고 <韓國과 韓國人>⁴¹⁾도 參考하여 整理하였다.

解剖와 生理 : 朝鮮時代의 醫書인 <鄉藥集成方>과 <東醫寶鑑>에 中國醫書에서 轉載된 口腔이나 齒牙에 關한 解剖 또는 生理를 說明한 記錄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非醫書인 <星湖僊說>의 五臟圖⁴²⁾ 耳目口鼻⁴³⁾ 舌窺根窺⁴⁴⁾ 와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圭景1788~?)의 支體釋名辯證說⁴⁵⁾ 人體內外總象辯證說⁴⁶⁾ 과 人有欠噦等諸條辯證說⁴⁷⁾ 등에 記錄되어 있는 實學者들의 口腔과 齒牙에 關한 認識을 살펴 보았다.

李瀛(1681~1763)은 <星湖僊說>에 湯苦望(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1~1668)의 <主制群徵>을 읽고 西國醫를 紹介한 實學者로 “五臟圖”⁴²⁾에 中國과 朝鮮에서의 屍體를 解剖한 記錄을 列舉하고 있다.

첫번째는 “누이동생 하나를 죽여서 千萬名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여 누이동생의 배를 갈라 보니 肝과 膈膜이 모두 썩었는데 櫻挑씨가 영켜 살이 돌아나 있었다. 이것을 보고 肝을 保護하는 處方을 얻었다는 不肖한 男子이야기와

두번째는 宋나라의 郡守 李夷簡이 泗川에서 死刑囚를 죽일 때 醫員과 畫工을 보내어 臟腑를 昭詳히 그렸다는 이야기를 紹介하였고, 세번째도 역시 宋나라 때의 杜杞가 廣南의 도독 歐希範을 잡다 배를 가르고 창자를 分解하여 그림으로 그려 만든 “五臟圖”가 지금까지 傳해 온다는 이야기와 네번째는 王奔이 翟義의 徒黨 王孫慶을 잡다 배를 가르고 五臟을 자로 채었으며 대쪽으로 血脈을 가늘 하여 經絡을 알아 내었다는 中國의 實證醫學의 발 자취를 說明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參判 全有亨이 壬辰倭亂때 三名의 屍體를 解剖하고 醫術이 精通해졌다는 人體 解剖와 같은 實證醫學의 實例을 들어 醫學의 發展을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當時의 屍體 解剖 行爲에 對해서는 儒敎의 人倫理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五洲衍文長箋散稿>의 支體釋名⁴⁵⁾에 무릇 사람치고서 肢體의 名稱과 分野를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하며 人體의 解剖學의 位置와 名稱, 그리고 名稱의 뜻을 풀이하여 說明하고 있는데 口腔領域에 關해서도 매우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즉 “사람의 百體는 제각기 그 이름이 있으니 醫經과 字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額은 鼻莖이니 눈의 깊은 곳에 連結되어 있다. 광대뼈(觀骨)는 코의 양쪽 옆에 있다. 顴骨 밑이 뺨(腮)이고 뺨 밑이 아래턱(頷)이며, 아래턱 밑이 앞턱(頤)이고, 귀(耳) 밑의 굽은 곳이 뺨(頰)이다……. 잇몸(齒齦)은 牙床骨이다. 뒷목구멍(後喉)이 咽인데 水穀을 받아드리는 것을 주로 하고 喉는 肺의 腕으로 氣의 出入을 주장한다. 厭은 膾厭인데 呼吸하는 門으로서 聲音이 나오는 곳이다. ……관자놀이(顛顛)는 귀앞의 움직이는 곳이다.

24) 洪萬選 : <山林經濟> 古典國譯叢書 231-232, 民族文化推進會, 1986. 25) 崔漢綺 : <明南樓叢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26) 崔漢綺 : <氣測禮義> 上揭書 I, p. 1-219. 27) 崔漢綺 : <人政> 上揭書 I, II. 28) 崔漢綺 : <身機踐驗> 上揭書 V, p. 1-209. 29) 金起東 外 : <韓國古典文學全集> 省音社, 1973. 30) 朴趾源 : <兩班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76-81. 31) 著者未群 : <金鈴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132-161. 32) 著者未群 : <가루지기打令> 韓國古典文學全集4, p. 216-247. 33) 著者未群 : <裊婢將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248-281. 34) 著者未群 : <토기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282-321. 35) 著者未群 : <興夫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400-413. 36) 著者未群 : <春香傳> 韓國古典文學全集8, p. 10-79. 37) 著者未群 : <李春風傳> 韓國古典文學全集7, p. 223-241. 38) 著者未群 : <玉丹春傳> 韓國古典文學全集8, 322-341. 39) <詩調篇> 韓國古典文學全集2, 40) <歌辭篇> 韓國古典文學全集3, 41) 李御寧 : <韓國과 韓國人> 三卷, 三省出版社, 1969. 42) 李瀛 : <星湖僊說> VI, 第15卷 人事門, p. 61. 43) 李瀛 : <星湖僊說> II, 第6卷 萬物門, p. 433. 44) 李瀛 : <星湖僊說> IV, 第10卷 人事門, p. 271. 45)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 上, 卷七, p. 223. 46)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 上, 卷十九, p. 559. 47)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 下, 卷三十八, p. 144.

頰은 面目 밑 귀(耳) 앞의 굽은 곳이다. 顴은 양측 頰의 高骨이다. 頤는 顴의 밑이고 頰은 頰과 顴의 사이의 뼈이며 輔車는 귀 밑의 曲頰의 끝이다. ……악(顎), 악(腭), 악(愕)은 이(齒)의 위 아래에 붙어 있는 살이다. 은(斷)은 잇몸, 거(齧)는 잇몸의 중기, 구(齧)는 老人의 이를 뜻하며, 운(齧)은 老人의 이가 없는 것을 뜻한다. 촌(齧)은 젓니를 가는 것, 초(齧)는 소아가 젓니를 가는 것을 말하고, 바(齧)는 이가 비뚤어지게 나는 모양, 우(齧)는 이가 겹쳐서 난 것, 저어(齧齧)는 위아래의 이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금계(齧齧), 함(齧)은 이를 갈면서 성내는 것, 계(齧)는 수면중에 이를 득득 가는 것을 말하며, 우(齧齧)는 蟲이 먹어서 이가 썩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서 現代醫學으로도 充分히 理解가 되게 記錄되어 있다.

人體內外總象⁴⁶⁾에서는 湯若望(Adam Shall)의 <主制群徵>를 引用하여 人形의 內經, 外經의 臟腑와 骨格을 說明하였는데 口腔 分野의 骨理에서는 “……上顎의 뼈는 12個이고 下顎의 뼈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齒牙)는 32個이고……”라 하고 註를 붙여 “어금니는 24個인데 혹은 32個 혹은 36個이기도하다.”라고 犬齒부터를 어금니로 計算하고 非正常的인 齒牙의 數까지를 記錄하고 있다. 肉理에서는 口腔領域이 빠져 있고 生理에서 “피(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飲食을 資料로 하는 것인데 飲食은 먼저 齒刀 거치고 다음에……”라는 機械的인 咀嚼機能을 說明하고 있다. 이 部門은 星湖의 말(西國醫)과 같다는 것도 付言하고 있다.

星湖는 耳目口鼻⁴⁷⁾에서 “눈은 보는 것을, 귀는 듣는 것을, 코는 냄새맡는 것을 맡았는데 이들은 모두 구멍으로 되어 밖으로 나타났고, 입은 말하는 것과 먹는 것을 맡았는데 이는 한 구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은 입도 역시 두 구멍인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입은 다만 말하고 飲食 먹는 구멍으로 되었을 뿐이고 코도 다만 氣를 通하는 구멍으로 되었을 뿐이다.”고 하고 또 “무릇 飲食을 먹을 때에 코는 냄새를 잘 分別하고 혀는 맛을 잘 分別한다. 혀바닥에는 오들도들하게 좁쌀처럼 생긴 것이 있고 좁쌀처럼

생긴 끝에는 모두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러므로, 음식물이 닿으면 맛을 알고 먹고 싶은 생각이 움직이면 침이 생긴다. 이(齒)는 씹게 되고 咽은 삼키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입이 맡은 것이다.”고 口腔領域의 組織과 機能을 자세히 說明하고 이 혀의 구멍으로 맛을 아는 理致를 舌窺根窺⁴⁸⁾ 라는 別途의 題目으로 說明하고 있다.

五洲의 “사람에게 있는 欠과 噦 등의 諸條에 대한 辨證說”(人有欠噦諸條辨證說)⁴⁹⁾에서 사람에게 있는 하품(欠), 구역질 또는 딸국질(噦), 트림(噫), 재채기(嚏), 한숨(太息), 침을 흘리는 것(涎下), 혀를 깨무는 것(齧舌) 등이 있는데 모두 그렇게 된 理由를 모름으로 大畧 辨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口腔領域에 關聯이 있는 것만 뽑아서 적어 보면 “涎下의 침(涎)은 입속에서 나오는 液體로서 飲食이 胃에 들어 가면 胃가 더워지면서 즉시 活動하면 胃가 느슨해지면서 廉泉이 열리기 때문에 침(涎)이 나오는 것이다.”라 하였고 “齧舌은 寒氣가 위로 치오름으로 말미암아 脈氣가 모두 함께 이르러서 그렇게 된 것인데 少陰의 氣가 이르면 혀를 깨물게 되고 少陽의 氣가 이르면 입술을 깨물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는 主病을 보아서 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飲食의 穀氣가 津, 液이 되고 그것이 다시 淸, 濁으로 나누어 지는데 淸한 것은 곧 津으로서 땀, 눈물, 콧물, 침이 되고 濁한 것은 곧 液으로서 피, 精液, 脂肪등이 되며 痰과 膿은 津과 液이 엉기어 뭉쳐서 變化된 것이다.”라는 口腔領域의 生理에 關해 說明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漢나라 때의 醫書에 있는 말로 理解하기 어려운 說明들이다.

齒痛의 原因: 齒牙를 害롭게 하여 齒痛을 誘發케하는 原因을 醫員이 아닌 星湖는 담배를 例舉하고 五洲는 담배와 砂糖을, 또 慵齊와 竹所는 五味子湯을, 山林經濟에서는 月蝕과의 關係를 들고 있다.

<星湖僿說> (李瀼 1681~1763)의 “南草”⁴⁸⁾에 光海君末年부터 담배가 많이 流行되었는데 이는 南쪽바다 가운데 있는 湛巴國에서 들어온 까담에 俗稱 담배(湛巴)라 한다. 고 紹介하면서 有益한

48) 李瀼: <星湖僿說>II, 第4卷 萬物門, p. 27.

점과 짙은 점을 說明하였는데 “안으로 精神을
 쏘치고 밖으로 듣고 보는 것까지 쏘쳐서 머리가
 희게 되고 얼굴이 늙게 되어 이 (齒)가 일찍 빠지
 게 되고 살도 따라서 여위게 되니 사람을 늙도록
 만든다.”고 담배가 사람에게 有害한 것이라고 記錄
 되어 있는데 <五洲衍長文箋散稿> (李圭景,
 1788~?) 賓主吃煙之儀辨證說⁴⁹⁾에도 “童子가 담
 배를 피우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이 담배가 이
 (齒)를 傷하게 한다”고 有害한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담배(南草, 煙草)에 關한 記錄은 <芝峯類說>
 의 “藥”⁵⁰⁾ 에 紹介된 淡婆姑가 처음인것 같다.
 “淡婆姑(다바고, ダバコ)는 草名인데 또는 南靈
 草라고도 한다. 近世에 처음으로 倭國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中畧……或 傳하기를 南蠻國의
 女人 淡婆姑라는 者가 있어 痰病을 오랜동안 앓다
 가 이 풀을 먹고 낫다 해서 이름을 淡婆姑라 했다
 는 것이다.”는 記錄과 張維(1587~1638)의 <谿谷
 漫筆>⁵¹⁾ 에 있는 記錄으로 보아 壬辰倭亂 直後에
 日本을 거쳐 輸入된 것은 確實하고 光海君 10年
 (1618)頃을 輸入된 初期로 보고 光海君 14年
 (1622)頃에는 많이들 피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니까 星湖, 五洲때의 南草에 對한 經驗으로는 잘
 表現되어 있다고 보아 齒牙를 傷하게 한다고 본
 것도 무리는 아닐상 싶다.

<五洲衍長文箋散稿> (李圭景, 1788~?) “煎
 果湯茶辨證說”⁵²⁾에 食忌를 따로 떼어 “砂糖과 大
 棗를 함께 먹으면 蟲齒를 앓는다”는 것과 “사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금니(大白齒)를 損傷한다.
 다만 먹은 후에 생살을 먹으면 傷하지 않는다.”라
 고 記錄하고 있는데 앞의 것은 蟲齒의 原因이 될
 수 있다고 充分히 理解가 되는 것이나 뒤의 사슴
 고기는 經驗도 없고 해서 알수 없는 理論이다.

砂糖은 恭讓王 2年(1390)頃 南海諸國의 貿易品
 으로 들어와 當時 高麗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知識
 이 되었다.⁵⁾ 五洲가 “꺼리는 食品中の 砂糖이 蟲

齒를 앓게 한다.”⁵⁴⁾라고 辨證한 것은 唐初의 <食
 療本草>(孟詵?)에 “꺼리는 飲食中の 砂糖을 많
 이 먹으면 이 (齒)가 傷한다”⁵⁵⁾고 한 句節이나,
 北宋時代의 <本草衍義>(寇宗奭, 1116경)에 “어
 린아이가 砂糖을 먹으면 이가 傷한다.”⁵⁶⁾는 記錄등
 을 보아 이미 唐때부터 砂糖이 이(齒牙)를 벌레먹
 게 한다는 記錄들과 같은 主張이다. 즉 五洲의 辨
 證이나 唐 때의 記錄이 現代의 蟲齒 原因說에 符
 合된다고 할 수 있다.

<山林經濟> (洪萬選, 1643~1715)에 “단 것을
 자주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더워지고 가슴
 을 그들먹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氣運이 위로 넘
 쳐서 입맛이 달아지며 이것이 變하여 消渴症(糖尿
 病)이 된다.”⁵⁷⁾ 고 했는데 <壽養叢書>에는 消渴
 病의 原因이 砂糖에 있다고 하였다.⁵⁸⁾ 이 消
 渴症 즉 糖尿病으로 無齒顎이 된 例의
 記錄이 있다. 즉 <慵齋叢話> (成俔, 14
 39~1504)에 있는 글로 “期文 崔勢遠의 동생 崔
 淵도 또한 말을 잘 하였는데 消渴症에 걸려 五味
 子湯을 즐겨 마시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가 모두
 빠졌으나 精神은 衰하지 아니 하여 晩年에 한 고
 을을 맡고자 함으로 이웃 친구가 말하기를 ‘이가
 없이 어찌 하겠느냐’하니 崔淵이 말하기를 ‘나에게
 松榛子(개암)를 입으로 깨라하면 그것은 못하겠으
 나 朝廷에서 이(齒)를 가지고 郡을 다스린다 던가
 ’하여 사람들이 모두 抱腹絶倒하였다”⁵⁹⁾는 이야기
 다.

이와 똑같은 글이 <海東雜錄> (權愷, 朝鮮中期)
 에도 있다.⁶⁰⁾이 두 글에는 五味子湯으로 齒牙가
 모두 빠졌다고 되어 있으나 事實은 消渴病 즉 糖
 尿病⁶¹⁾에 依해 齒牙가 빠졌으리라 믿는다. 五味子
 湯은 <事林廣記>에 消渴을 治療하는 單方으로
 되어 있고 <鄉藥集成方>⁶²⁾에 引用되어 있으
 며, <東醫寶鑑>⁶³⁾에도 消渴을 고치는 單方으로
 나와 있다. 五味子가 性質이 溫하여 渴症, 慢性氣
 管支炎, 虛老와 腎, 肺의 機能 減退를 治療한다⁶⁴⁾

49) 李圭景: <五洲衍長文箋散稿>下, 卷三十七, p. 106. 50) 李晔光: <芝峯類說>第十九(49). 51) 張維: <谿谷漫筆>卷一(39-40). 52) 李圭景: <五洲衍長文箋散稿>上, 卷十, p. 359. 53) 李仁老: <破閑集>卷中(8). 54) 李圭景: <五洲衍長文箋散稿>上, 卷十, p. 363. 55) 孟詵: “多食生長蟲 消肌肉 損齒” <食療本草> 日本齒科醫史學會誌8(3), P. 14 1981. 56) 寇宗奭: “小兒多食則損齒” <本草衍義> 日本齒科醫史學會誌8(3), p. 14, 1981. 57) 洪萬選: <山林經濟>第一卷, p. 60. 58) 李昌庭: <壽養叢書類輯>下, 本草篇, p. 311. 59) 成俔: <慵齋叢話>卷六, 大東野乘 I, p. 157. 60) 權愷: <海東雜錄>卷四, 大東野乘, V, p. 413. 61) 許浚: <消渴之源> 東醫寶鑑, 雜病篇, 卷六(41). 62) 俞孝通 等撰: <鄉藥集成方>卷十六, 杏林書院, 1943, p. 128. 63) 許浚: <消渴> 東醫寶鑑, 雜病篇, 卷六(52). 64) 李相漸: <現代漢方藥物學>書苑堂, p. 236, 1983.

고 되어 있어 五味子が 齒牙를 害롭게 할 根據는 찾아 볼 수 없다.

<山林經濟> (洪萬選, 1643-1715)에 <芝峰類說>에서 引用한 “醫方에 日蝕이나 月蝕이 미쳐 끝나기 전에 마시거나 먹는 것을 꺼린다.” 하였고 또 “대체로 사람들의 齒痛은 흔히 月蝕한 밤에 飮食을 먹은 탓으로 생긴다.”⁶⁵⁾고 하였다. 이러한 內容의 글은 <千金方>에도 있고⁶⁶⁾ <東醫寶鑑>에는 齒痛禁忌에 <千金方>을 引用하여 記錄하고 있다.⁶⁷⁾ 그러므로 여기의 醫方이라 함은 <千金方>이나 <東醫寶鑑>일 것이나 理致는 古代 中國의 論證으로 論할 價値가 없다고 본다.

齒痛의 治療 : <朝鮮王朝實錄>에 王이 齒痛으로 苦生하신 記錄이 몇 條 있다. 즉 世祖 2年 (1456) 1月 24日 濟州 安撫使에게 “女醫중에서 難産, 眼疾, 齒痛을 잘 고치는 사람을 2~3名 골라 올려 보내라”라고 한 記錄이 있다.⁶⁸⁾ 이는 王의 齒痛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宮中의 여러 患者中 齒痛患者도 있었던 것 같다.

成宗 11年(1480) 7月 8日 條⁶⁹⁾에 王이 “齒痛이 몇年이 되었는데 널리 醫藥을 써 보았으나 效果가 없다…… 館伴을 시키어 使臣에게 물어 보면 그는 誠心껏 藥을 求할 것이 아니냐”하고 물으니, 都承旨가 말하기를 “殿下의 齒痛을 他國人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등 王이 齒痛으로 몹시 苦生한 것을 엿볼 수 있다. 그後 成宗 19年(1488)⁷⁰⁾에는 濟州 牧使가 “齒痛을 고치는 女醫 張德이 이미 죽고 지금은 그 業을 傳授하는 사람이 없다.”는 報告가 記錄되어 있는데 成宗 23年(1492) 6月 14日 條⁷¹⁾에 “濟州 女醫 張德은 齒蟲를 잡아 냈다. 病瘡이 있는 곳은 모두 잘 고쳤다. 죽게 되자 그 術法을 중인 貴今에게 傳하여 國家에서는 女醫를 만들어 널리 그 術法을 傳하려 하여 두 女醫를 따르게 하였다. 貴今은 그것을 祕密로 하고 가르치지 않아 貴今을 問責하니 貴今은 「나는 7歲부터 이 工夫를 하여 16歲에 배웠다. 지금 내가 마음을 쓰지 않음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도 그들은 배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記錄이 있다.

이 濟州島에서 온 女醫에 對한 이야기가 <慵齋叢話> (成俔, 1439~1504)에도 있다. 즉 “朝廷에서各司各官의 나이 어린 童년을 뽑아서 惠民署에 屬하게 하고 醫書를 가르쳐 女醫라 이름하고 이들로 하여금 婦人의 病을 고치게 하였다. 한 女子가 濟州에서 있는데 醫術은 알지 못하나 다만 齒蟲을 잘 뽑는지라, 士大夫 집에서 다투어 서로 맞아 가더니 그 女子가 죽으니 또 한 女子에게 그 業을 傳하여 나도 또한 불러다가 이를 治療하니 얼굴을 위로하여 입을 열게 하고 銀으로 만든 筴가락으로 조그마한 흰 벌레를 꺼내나 筴가락은 이에 들어가지 않고 이에서 피도 나지 않아 그 쉬운 것이 이와 같았다. 또 이 技術을 다른 사람들에게 傳하지 아니하여 朝廷에서 罪를 다스려도 오히려 告하지 아니하니, 이는 반드시 幻術이요 正業이 아닐 것이다.”라는 記錄이 있다.⁷²⁾

또 <靑坡劇談> (李陸, 1438~1498)에도 齒蟲을 잡아내는 濟州島 張德에 關한 글이 있다. 즉 “내가 젊었을 때 濟州島에 사는 加氏라는 사람을 본 일이 있다. 士族의 집에 드나들면서 齒蟲을 잡아 내는데 效驗이 있었다. 그후 같은 濟州島의 女婢 張德은 加한테서 術法을 배웠다. 齒痛이나 코와 눈病이 있으면 수없이 벌레를 잡아내는데 病도 조금씩 낳았다. 대낮에 침으로 핏줄을 찢어 벌레를 잡아내면 벌레는 꿈틀거리면서 며칠이 가도 죽지 않았다. 사람들이 뺨 둘러서서 보았으나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일찌기 大闕에 들어가 이를 治療하여 效驗이 있었는데 惠民署의 女醫로 삼고 나이 어린 女醫 몇 사람으로 하여금 그 技術을 배우게 하였으나 끝내 傳한 사람이 없었다. 다만 사사 중에 玉梅라는 者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심부름하곤 하더니 張德이 죽자 玉梅가 그 技術을 모두 알아 또한 惠民署에 所屬되었다. 그 집이 우리 집과 이웃이어서 그의 하는 것을 보건대 정말 新奇한 技術이다. 내 일찌기 中國 使臣으로 가 있을 때 針을 삼키고 콧구멍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라든가 크고 작은 어린 아이가 꾸짖음에 따라 스스로 뛰게하는 者도 있었고……모두 눈과 귀를 놀라게

65) 洪萬選 : <山林經濟> 第二卷, p. 250. 66)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卷第六下, p. 121, 自由出版社, 慶熙大學校 所藏本. 67) 許 浚 : <齒病禁忌> 東醫寶鑑, 外形篇, 卷二(37), 68) <世祖實錄> 卷三(5). 69) <成宗實錄> 卷百十九(6). 70) <成宗實錄> 卷二百二十(13). 71) <成宗實錄> 卷二百六十六(9). 72) 成 俔 : <慵齋叢話> 卷十, 大東野乘 I, p. 247.

하였다. 아마 그 類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이다.⁷³⁾ <慵齋叢話>나 <靑坡劇談>의 글을 보면 結論이 齒科醫術의 依한 治療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記錄의 內用으로 보아 加氏, 張德, 貴今, 玉梅(貴今과 玉梅는 同一人인 것 같다) 등 齒科醫術을 行한 사람들의 行蹟이 幻術이나 妖術로만 보기는 어렵다. 王의 齒痛을 고쳤고 貴族, 士大夫 家族의 齒痛을 治療해서 效果가 있었다고 記錄되어 있고, 또 效果가 있었으니까 正業이 아니라고 罰하지 않았고 世宗에서는 이미 濟州의 孝德에게 眼疾, 齒病을 잘 고친다고 米, 豆, 五石과 塩, 醬, 絲布, 正布, 三匹을 주라⁷⁴⁾고 命한 일이 있으며 또 貴今으로 하여금 惠民署에서 蟲齒治療法을 가르치게 했을 것이다.

熟達된 老婆(當時 貴今의 나이 50歲以上으로 推定됨)의 醫術을 門外漢인 儒生이 記錄했으니 治療術法도 仔細하지 않고 偏見의인 面도 있다고 보아 正確한 治療內用을 指摘하기 어려우나 李漢水의 推測⁷⁵⁾대로 拔髓 充填일 수도 있다.

燕山君이 卽位한 해 (1495) 3月 24日 尹壕 承旨가 “主上께서 큰 病을 지내신 뒤에 또 齒痛으로 屢患하시니 請컨대 初處祭를 親히 行하심을 正하시고 더욱 조리 하소서”라 하니 王이 傳敎하기를 “지금 비록 齒痛은 있으나 몸에 病이 없으니 어찌 親히 大事를 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는 記錄이 있다.⁷⁶⁾

中宗14年(1496) 6月 16日 王이 “나의 잇병(齒牙의 病)은 벌레가 생겨 그러는가 싶어 지금 藥으로 治療하려고 한다……오늘 經筵에 나아가 이가 아파서 실현하지 못했다.” 하니 內醫院이 如神散을 올렸다는 記錄도 있다.⁷⁷⁾ 中宗은 37年 (1542)에도 齒痛을 앓은 記錄이 있고⁷⁸⁾ 39年 (1544)에는 1月 17日,⁷⁹⁾ 6月 29日,⁸⁰⁾ 7月 24日⁸¹⁾에 齒痛으로 苦生한 記錄이 있는데 여기에는 症勢와 治療法을 仔細히 記錄하고 있다.

즉 6月 29日字 記錄에 “나에게 본디 이얹이(齒痛) 症勢가 있는데 아픈 것은 빠졌으나 只수는 있는 이가 아프고 흔들린다. 이 이가 빠지면 食事를

먹기 어렵겠고 잇몸도 붓고 진물이 나오는데 藥으로 고칠 수 있는가. 이 뜻은 이미 藥房에 分付했으나 左承旨 安玆이 藥理를 안다 하니 提調와 같이 議論하여 아뢰라. 左承旨가 오지 않았거든 承旨가 들어와서 傳해 말하라.”하매 內醫院 提調 姜顯, 左承旨 安玆 등이 問安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위에서는 본디 이얹이 症勢가 있으나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氣가 冷熱하거나 進御가 또한 찬 것이면 또다시 일어날 만 하니 下敎하소서. 그런 뒤에 議論하여 아뢰겠습니다.” 하니 下敎하기를 “이것은 큰 病이 아니니 問安하지 말라. 이제 症候를 보면 熱氣와 感氣가 다 없다 할 수 있다. 대저 感氣에는 반드시 熱氣가 생기므로 이가 움직일 때에 잇몸도 헐고 熱이 나니 感氣때문에 일어난 듯하다. 잇몸이 조금 붓고 진물이 나는데 이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겠는가”하시었다. 姜顯이 다시 아뢰기를 “먼저 玉池散으로 養齒질한 다음에 淸胃散을 服用하고 牢牙散을 아픈 이 곁에 바르고 또 蓖麻子 油를 아픈 이에 塗려 무는데 뽕나무 가지를 써도 됩니다. 다만 牢牙散에는 羊의 疇강이뻘을 넣으므로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 하는 仔細한 治療法이 說明되어 있으나 7月 24日 날짜에 “王이 前날부터의 齒銀痛腫으로 左頰에 若干의 부기가 있다”라고 記錄한 것으로 보아 治療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燕山君의 齒痛에 對해서는 治療한 記錄이 없어 알 수 없으나 中宗의 齒科疾患은 甚했던 것 같다. 內醫院에서 처음에 올린 藥方은 “如神散”으로 이 處方은 <和劑局方>에서 引用한 <鄉藥集成方>⁸²⁾에 있는 風牙痛으로 밤낮으로 멎지 않고 잘 수도 없드릴 수도 없게 아프고 때로는 齒牙가 움직이고 따라서 빨도 붓는데 川椒와 露蜂房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쓸 때마다 가루 一錢에 물 一鍾, 소금을 若干 넣어 八分이 되게 다려 養齒하거나 먹어도 좋다는 藥이다. 그 후에 올린 藥은 “玉池散”인데 이 藥은 齒痛이나 口안의 腫爛에 쓰는 養齒藥이다. <和劑局方>에 있는 處方으로 <醫方類聚>에도 轉載되어 있다.⁸³⁾ 이 “如神散”과 “玉

73) 李 陸: <靑坡劇談>, 大東野乘 II, p. 133. 74) <世宗實錄>卷五十二(17) 75) 李漢水: <世宗의 蟲齒治療와 齒科醫女> 韓國齒學史, 서울大學校出版部 p. 233. 1988. 76) <燕山君日記>卷四(11). 77) <中宗實錄>卷三十六(23-24). 78) <中宗實錄>卷九十七(49). 79) <中宗實錄>卷百二(69). 80) <中宗實錄>卷百三(57). 81) <中宗實錄>卷百四(12). 82) 俞孝通等: <鄉藥集成方>卷三十四 杏林書院, 1943, p. 256. 83) 世宗 命撰: <醫方類聚>卷七十一(102), 東洋醫科大學 影印本 p. 2572.

池散”은 그 當時 많이 愛用되던 藥이였는지 燕山君때 編纂된 <救急易解方>의 齒病에 掲載되어 있다.⁸⁴⁾ “清胃散”은 <東垣試驗方>의 處方으로 참기 어려운 上下齒牙의 齒痛에 胃熱을 補해주는 藥으로 <醫方類聚>에 轉載되어 있고⁸⁵⁾ “牢牙散”은 많이 흔들리어 빠질려고 할때 쓰는 藥인데 <鄉藥集成方>의 處方이 아니고 <聖惠方>에 있는 處方을 使用하고 있다.⁸⁶⁾ 明宗, 宣祖 때에 編纂된 <醫林撮要>에는 이들 如神散, 玉池散, 清胃散, 牢牙散의 處方이 모두 들어 있다.⁸⁷⁾ 즉 <鄉藥集成方>의 것이 아닌 處方이 使用되고 있고 새로이 編纂된 醫書에는 記載되어 있음은 이미 醫藥의 變遷이 많이 되고 있다는 證據이다.

<山林經濟> (洪萬選, 1643~1715)에 頭痛이 齒痛으로 連結되는 것을 厥逆頭痛이라 했는데 白附子散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다.⁸⁸⁾ 白附子 1兩과 마디를 除去하지 않은 麻黃과 川椒, 天南星 各 5錢, 全蝎 5個, 乾薑, 朱砂, 麝香 各 5錢半을 가루로 만들어 술에 2分半을 타 먹이고 다 먹은 뒤에는 베개를 치우고 눕혀 조금 재우면 즉시 그친다는 藥이다. 이 處方은 <東醫寶鑑>의 “齒痛”項에 있는 것이 아니라 “厥逆頭痛”에서 引用하고 있다.⁸⁹⁾ <鄉藥集成方>에 風齒宣露의 “升麻散”은 升麻와 白附子로 되어 있으나⁹⁰⁾ 이밖에 “口舌”이나 “齒牙”의 項에서는 白附子が 든 處方이 보이지 않는다. 이 白附子是 <鄉藥採取月令>의 “七月採取 藥材”⁹¹⁾에 記錄되어 있고 <東醫寶鑑>의 “湯液篇 草部”⁹²⁾에 記載되어 있어 全身疾患 處方에 쓰이는 藥材인것 같다. 또 <五洲衍文長箋散稿>의 齒痛神藥辨證說⁹³⁾에는 齒痛에 鬼神같이 낯은 藥 “齒痛神藥”이라 하여 “어려서 京畿 富林縣 三峴에 있는 外家집 別莊에서 몇리 떨어진 飛山洞 農家의 한 婦人이 어떤 부드러운 풀로 작은 丸藥을 만들어 齒痛을 고치는데 아주 鬼神 같았다. 丸藥 하나의 값은 15文인데 그 집은 恒常 門前盛市

를 이루었는데 누가 그 풀의 이름을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비록 시아버지가 물어도 숨기고 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풀인지 아무도 몰랐고 祕方도 傳해 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記載하고, 이어서 “내가 忠州牧 德山郡 森田里라는 곳에 寓居하고 있는데 丹陽郡 梅浦에서 酒客 李姓老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齒痛을 앓고 있다고 하였더니 그는 風齒 蟲齒를 莫論하고 齒痛에는 들에 나는 俗名이 芝昌貴라는 나물이 第一이다.

그 맛이 쓰고 아무데서나 자란다. 萬若 이른 봄이면 그 筍을 따서 납작하게 깎아 이겨 도토리 껍질 속에 넣어 아픈 이(齒)에 대고문다. 그러면 얼마 후 이(齒)에 藥物이 들면서 저절로 쓴 물이 생기게 되는데 한식경이 지나면 痛症이 가신 듯이 없어진다. 한차례 해서 差度가 없으면 몇차례 더하면 낫지 않는 境遇가 없다. 여름이나 가을에는 그 잎을 따서 두었다가 물에 담구어 乾燥시키어 가루로 丸藥을 만들어 法대로 머금으면 靈驗이 있다. 고 말해 주었는데 이것이 飛山洞의 女人이 쓰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齒痛治療에 대한 經驗談을 記錄하고 있다.

讓醫月令辨證說⁹⁴⁾에서는 <本草綱目>에 이(齒)는 5월 5일에 다스린다. 鷄腸草를 따서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들어 아픈 이에 문지르면 낫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면 效果가 있다.”는 손쉬운 單方의 齒痛 治療法을 紹介하였다.

또 馬夜眼變證說⁹⁵⁾에는 “말이 밤에도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馬夜眼이 발 무릎위에 있기 때문이며 이 馬夜眼은 <本草綱目>에 齧齒와 齒痛을 고칠 수 있다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處方은 “白馬의 앞다리에 있는 夜眼 2個, 白馬의 꼬리털 14個를 합해서 태워 술로 작은 콩알만 하게 丸을 만들어 白湯으로 2알을 먹으면 잠시 후에 齧齒는 다시 蘇生한다. 齒痛에는 馬夜眼을 쌀알만큼 하게 만들

84) 尹弼商 外: <救急易解方>八, 齒病, 韓國醫學大系 I, p. 276. 85) 世宗 命撰: <醫方類聚>卷七十二 (22), 東洋醫科大學 影印本 p. 2588. 86) 王懷隱: <太平聖惠方>卷第三十四, p. 1019, 慶熙大學校所藏本, 87) 楊禮壽: <醫林撮要>卷七(75, 76), 奎章閣所藏本 88) 洪萬選: <山林經濟>第三卷, p. 31. 89) 許 浚: <厥易頭痛>東醫寶鑑, [外形篇, 卷一(8) 90) 俞李通 等: <鄉藥集成方>卷三十五, 杏林書院, 1943, p. 263. 91) 俞孝通 等: <鄉藥醫採取月令>七月採, p. 7. 奎章閣所藏 筆寫本 92) 許 浚: <草部>東醫寶鑑, 湯液篇, 卷三(22). 93)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上, 卷三十 p. 868 94)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下, 卷四十三 p. 405. 95)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下, 卷五十七 p. 846.

어 솜으로 싸서 이의 파인 구멍에다 넣으면 침이 나오는데 그런 다음 토해버리면 永遠히 아리지 않으며 혹 生附子를 조금 넣기도 한다”라고 仔細히 記錄하고 있다.

五洲는 自身이 經驗한 例를 들어 齒痛에 “芝昌 貴나물”을 民藥으로 紹介하고 <本草綱目>에 있는 齒痛의 藥材인 “鷄腸草”와 “馬夜眼”에 對하여 仔細한 用法과 效果를 記錄하고 있으나 이들 藥材의 實際的 效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當時 民間에서 使用하던 處方인 만큼 現代醫學으로도 考慮해 봄직하다.

朝鮮朝 小說 <토끼傳>⁹⁶⁾에는 “……舌腫에는 黃蓮湯이요 齒痛에 “犀角升麻湯이요……”라는 口腔病, 齒痛의 藥方이 나온다. 舌腫의 黃藥湯은 <萬病回春>에서 引用한 <東醫寶鑑>에 있는 藥方⁹⁷⁾ 이나 “犀角升麻湯”은 <本事方>에서 引用한 <東醫寶鑑>의 “面”項에 있는 處方⁹⁸⁾ 으로 內服藥이다. 當時의 사람들은 齒痛을 單純한 齒牙의 病으로만 보지 않고 胃風熱毒에 依한 牙腫痛의 誘發로 오는 齒痛이라 해서 全身療法을 우선 施術하는 慣習的인 表現이 아닌가 한다.

朝鮮時代에 있어서 王室이나 士大夫, 庶民을 莫論하고 齒痛患者가 매우 많았음을 짐작케 한다. 즉 張德을 “다투어 서로 맞아 갖다”든가 “士族의 집을 드나들며”라는 長安에서의 齒痛治療 光景의 記錄과 飛山마을의 齒痛 고치는 집 앞에는 恒常 “門前盛市”였다는 句節로 보아 齒痛으로 苦生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充分히 알 수 있다. 이러한 齒痛治療에 全身療法을 아울러 施術하고 齒痛을 멈추게 하는 治療法을 쓰고 있으나 當時의 社會에서는 王을 爲始하여 모든 사람들이 齒痛을 큰 病으로 看做하지는 않았던것 같다. 요사이도 齒牙疾患을 큰 病으로 看做하지 않고 아파서 먹을 수 없는 것만 닦하는 思考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다.

外科的 治療: 우리나라 醫書에는 手術이라던가 拔牙 등에 對한 觀血의 方法의 記錄은 極히 原始的인 것 뿐이다. 非醫書인 文集이나 日記등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며 手術 또는 拔牙에 對한 具體的인 記錄은 發見하지 못하였으나 齒牙에 對한 外科的인 動作의 表現이 몇수 보여 紹介한다.

<海東雜錄> (權黼)에 長安의 한 少年이 情에 빠진 鷄林의 한 美娼으로부터 “그대의 살을 자른 (切身) 物件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請을 받고 少年이 앞니(前齒)를 분질러서 美娼에게 주었다.⁹⁹⁾ 는 折齒의 記錄이 있고, <裊裊將傳>¹⁰⁰⁾에는 拔牙 場面을 그린 “粉壁紗窓에 마주 앉아 서로 보고 당시 당시 웃으시던 앞니(前齒) 하나 빼어 주시오”라고 愛娘이 付託하니 鄭裊將이 大惑하며

“工房房子야 장도리와 집계를 대령하여라
에 대령 하였읍니다.

너는 이를 얼마나 빼어 보았느냐
예, 많이는 못 빼어 보았으나 서너말은 빼어 보았읍니다.

이놈, 제주 이는 몰봉친 놈이로구나. 다른 이는 상하지 않게 앞니 한 개만 썩 빼어라
소인이 이(齒) 빼기는 熟手段이 낮아오니 어련하오니까

하면서 집계로 집고서 左衝右突 槍劍格으로 흔들 어 대니…”라고 이를 뽑는 光景을 그린 글이 있다. 이 小說에 이를 뽑는 기구 “집개” 鉗子가 紹介되어 있다. 어떠한 形態의 “집개”였는지는 모르나 當時의 社會나 그 이전에도 拔牙에 “집계”를 使用하였을 것은 分明하나 記錄은 없다. 이 小說이 英, 正祖때 즉 1700年代의 것이므로 프랑스의 d'Ambroise Paré (1510-1590)¹⁰¹⁾가 여러가지 拔牙器具를 使用하고 있었을 때보다 약 200年 뒤에 쓴 記錄이다.

<山林經濟>에 “어금니를 빼고나서 出血이 많다가나 金瘡때문에 또는 產後에 出血이 많으면 眩暈 悶絶의 症勢가 있게 되는데 急히 芎歸湯인 川芎, 當歸 각 5錢을 연달아 달여서 자주 먹이면 즉시 蘇生한다”¹⁰²⁾는 拔牙 後 甚한 出血으로 오는 眩暈의 治療法을 記錄하고 있으나 이도 역시 <得

96) <토끼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286. 97) 許浚: <口舌> 東醫寶鑑, 外形篇, 卷二(21), 98) 許浚: <面> 東醫寶鑑, 外形篇, 卷一(20), 99) 權黼: <海東雜錄> 卷四, 大東野乘 V, p. 433. 100) <裊裊將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257. 101) Hoffmann-Axthelm, W., <The 16th Century> History of Dentistry, Quittessence P.C. p. 145, 1981. 102) 洪萬選: <山林經濟> 第三卷, p. 33.

效方>의 處方을 轉載한 <東醫寶鑑>에 있는 應急用 藥方이다.¹⁰³⁾

<己卯錄補遺> (安路, 1498~1519)에 “어떤 婦人이 하루는 아침에 養齒질을 하는데 혀 끝에서 피가 줄줄 나와서 連日 그치지 않았다. 止血藥을 많이 썼으나 그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瓚에게 가서 물으니 瓚이 말하기를 “急히 龍腦蘇合香元을 服用하라. 조금이라도 遲滯하면 救援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즉 安瓚이 婦人의 病(出血)이 心氣가 極히 熱하여 피가 끓어 올라서 혀로 出血이 되는 것이니 婦人의 속病을 다스리면 止血이 된다고 풀이 했다는 記錄이 있다.¹⁰⁴⁾ 이 <己卯錄補遺>의 記錄과 똑 같은 內容이 <海東雜錄>에도 있다.¹⁰⁵⁾ 蘇合香元에 龍腦를 넣으면 龍腦蘇合香元이 되고 龍腦가 들지 않는 것은 麝香蘇合香元이라 하는데, 이들은 氣를 다스리는 通治氣藥으로 <東醫寶鑑>內經編 卷之一 氣에 있는 藥方이다.¹⁰⁶⁾

이 外에 <熱河日記>의 “金蓼小抄”¹⁰⁶⁾에 折骨을 있는 方法으로 “기왓장을 불에 달구어 잘 말린 자라 半兩을 自然銅, 乳香, 沒藥, 菜瓜子仁등을 各己 等分해서 가늘게 가루를 내서 一分씩 술에 타서 먹는다.”는 記錄을 하고 있다. 星湖가 들은 이야기를 記錄하여 <星湖僊說>에 “飢寒刀傷”¹⁰⁸⁾이라 題하고 “武人으로 칼날에 傷하여 창자가 나온 者가 뽕나무 껍질로 傷處를 싸매어 效果를 얻은 일이 있으니……” 하고 唐 때의 安金藏의 말을 써 놓고 “대개 비록 창자를 뱃속에 집어 넣었지만 창자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창자까지 合하여 폐메게 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縫合術을 例로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縫合絲로 뽕나무 껍질을 쓴다는 새로운 記錄이기에 口腔領域의 手術法은 아니나 參考로 적어둔다.

<山林經濟>의 “治藥”¹⁰⁹⁾에 兎肉이라 하고 토

끼고기가 藥이 되는 例를 들고 있다. 여기에 “妊娠 때 兎肉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기가 언청이(兎脣)가 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警告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止血法 또는 外科의 手術法에 對한 記錄이 當時의 經驗 또는 見聞의 것이 아니고 唐 또는 宋나라 때의 醫書에 있는 處方 또는 方法이여서 特記할만 한 것은 못되나 위의 例들이 우리의 周邊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으리라고도 믿어진다.

口腔의 衛生: <山林經濟> (洪萬選, 1643~1715)에 “飲食을 먹고 나서 養齒질을 하면 입이 香氣롭고 이가 傷하지 않는다”¹¹⁰⁾ “또 뜨거운 물로 養齒질을 해서 안된다. 뜨거운 물로 養齒질을 하면 이(齒)가 傷한다”¹¹¹⁾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로 養齒질을 하면 이가 튼튼해지고 臟에도 有益하다”¹¹²⁾ 등 <壽養叢書>에 있는 治療法¹¹³⁾을 引用하여 齒牙를 爲한 攝生으로 列舉하고 있다. 醫書에 있는 含嗽 즉 머금는다 던가 헹구는 것을 養齒라고도 하나 여기서 養齒질이란 입안에 물 또는 소금물을 머금고 헹구는 方法이 強하여 바위 사이의 急流와 같이 齒牙사이의 殘渣物이 씻겨나가게 가서내는 方法을 말하는 것 같다.

<兩班傳> (朴趾源, 1737~1805)에 “끓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뎌 내야 하며 가난은 아예 담지 말 것이며 할 일이 없이 앉아 있을 적에는 아래 위 잇줄을 마주쳐 딱딱거리며 뒤통수를 툭툭 치고 잔기침을 하며 다서 침을 삼켜야 하느니라……洗手 할 적에는 주먹으로 씻지 아니하고 養齒질은 두어 번 알맞게 하느니라”¹¹⁴⁾라고 兩班으로서의 몸가짐을 가르치고 있다. 또 <山林經濟>에 <壽養叢書>의 “머리는 많이 빗어야 하고 손은 얼굴을 많이 문질러야 하고 이(齒)는 자주 마주쳐야 하며

103) 許浚: <婦人>東醫寶鑑, 雜病篇, 卷十(44), 104) 安路: <己卯錄補遺>上, 大東野乘 III, p. 120. 105) 權愷: <海東雜錄>卷一, 大東野乘 V, p. 100. 106) 許浚: <氣>東醫寶鑑'內經篇, 卷一(49), 107) 朴趾源: <金蓼小抄>熱河日記 II, p. 333. 108) 李翼: <星湖僊說>IV, 第9卷, p. 27. 109) 洪萬選: <山林經濟> 第四卷, p. 177. 110) 洪萬選: <山林經濟> 第一卷, p. 62. 111) 洪萬選: <山林經濟> 第一卷, p. 64. 112) 洪萬選: <山林經濟> 第一卷, p. 64. 113) 李昌庭: <壽養叢書類>上, 187-210. 114) <兩班傳>韓國古典文學全集4, p. 78.

침은 늘 삼켜야 한다.”¹¹⁵⁾라는 글을 轉載하고 있다. 이들은 위의 攝生法을 生活化하는 日課를 말한 것이다.

<靑莊館全書> (李德·1741~1793)에는 “내가 일찌기 이(齒)에 탈이 나서 흔들흔들 빠질 것만 같았는데, 飮食은 뜨거운 것이나 찬 것이나 모두 아파서 苦痛스러웠다. <抱朴子>에 이(齒)를 굳히는 法을 보니 이른 아침에 이(齒)를 3百番 두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數日 동안 施行했다니 곧 나았다”¹¹⁶⁾라는 啄齒療法과 “米元章(1051~1107)이 일러 준 말에 “松脂 좋은 것을 고운 베포대에 담아 하룻동안 물에 적셨다가 물을 넣고 물 위에 뜨는 것만 대조리로 건져 내어서 새로 길어온 물에 넣는다. 끓여도 물위에 떠오르지 않는 것은 버리고 쓰지 않는다. 여기에다 生茯苓 가루를 넣고 고루 섞어 매일 아침 3돈씩을 입에 넣고 조금 데운 물로 뒤섞어서 손가락으로 예사 方法같이 이(齒)를 매우 문지른 다음 다시 더운물을 머금어 우물우물하여 뱉어낸다.”¹¹⁷⁾는 揩齒法을 記載하고 있다.

이러한 <兩班傳>이나 <山林經濟>의 兩班들이 攝生生活의 叩齒法이나 <抱朴子>의 啄齒法 또 米元章의 揩齒法등의 起源 역시 中國임으로 일찍히 傳해져 우리 나라에서도 오래동안 齒牙保護를 爲해 實踐해 온 方法이다. 그러나 現代의 醫書에는 그 用語마저 없어지고 말아 效果를 짐작할 수가 없다.

<山林經濟>에 <芝峰類說>에서 引用한 <二養編>의 “攝生을 하는 사람은 恒常 大粟씨를 물고 있다. 大粟씨는 침을 생기게 하고 있어 침을 삼키기에 便利하기 때문이다.”¹¹⁸⁾라는 말이 있다. 이 方法은 中國 山東省에서 發掘된 新石器時代 人骨의 口腔에서 發見된 한 攝生의 方法으로 입에 물던 것으로 推測하는 石球 또는 陶球¹¹⁹⁾가 變하여 大粟씨로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 보기도 하며 요사이의 “추잉 껌”과도 그 作用을 比較해 본다.

또 <山林經濟>에 역시 <壽養叢書>의 拭齒(刷牙子)에 對한 이야기를 引用하고 있다. 즉 “刷牙子を 아침에 알찍 일어나 使用하는 것은 좋지 않다. 刷牙子是 말 꼬리로 만드는데 말 꼬리는 齒根을 썩게 한다.”¹²⁰⁾라는 글이다. 李昌庭(1573~1625)이 光海君 때의 사람이니 拭齒이 그 當時 들어와 있었는지 몰라도 中國에는 堯때에 이미 털을 심은 拭齒이 있었음을 熱河省의 堯때의 墓에서 發掘하여 證明하고 있다.¹²¹⁾ 그런데 위의 拭齒에 關한 이야기는 宋때의 周守中이 編纂한 <養生類纂>에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拭齒을 使用하는 것은 좋지 않다. 齒根이 들 뜨고 잇새가 벌어져 움직이기 쉽다. 오래 쓰면 이가 아플 것이다.”¹²²⁾라 한 것과 같은 內容으로 經驗이 아니고 常識이었을 可能性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國內에서 말 꼬리로 만들었을 可能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理由로는 佛敎를 통해 輸入된 齒木이 있었고 이쑤시개가 生活化되어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다녔으니 中國에 있었던 拭齒이 없을리 없고, 壬辰倭亂때에 그 많은 援軍中에 拭齒을 가지고 온 軍人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五洲가 늙어서인지 惡夢이 많아 醫方에 있는 것을 옮긴다고 하며 “惡夢을 깨고 나서는 이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고 急히 이(齒)를 일곱번 딱딱 마주 치면서 “惡夢은 草木에 붙고 좋은 꿈은 珠玉이 되라.”고 呪文을 세번 외면 吉하다.”라고 <五洲衍文長箋散稿> 夢境辨證說¹²³⁾에 記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山林經濟>에 “倉卒間에 兇惡하고 상서롭지 못한 것을 만나면 왼쪽 이를 36번 마주치고 兇惡한 곳을 지나면서 邪氣를 물리치고 神에게 威嚴을 보이며, 큰소리로 呪文을 율 때는 오른쪽 이를 36번 마주치며 생각을 集中시키고 道를 생각하며 眞性和 靈氣를 招致할 때는 한복판의 네 이를 마주치되 입은 다물고 불은 느슨하게 하여 허한 소리로서 음향을 깊게 해야 한다.”¹²⁴⁾는 記錄이 있다. 惡夢을 꾸었을 境遇의 五

115) 洪萬選 : <山林經濟>第一卷, p. 64. 116) 李德懋 : <耳目口心書>5, 靑莊館全書 VIII, p. 225. 117) 李德懋 : <耳目口心書>5, 靑莊館全書 VIII, p. 227. 118) 洪萬選 : <山林經濟> 第一卷, p. 64. 119) 周大成 : <中國新石器時代人類의 口腔에 球을 含む 習俗について> 日本齒科醫學史學會會誌 8(2), p. 36-39, 1881. 120) 李昌庭 : <壽養叢書類輯>上, p. 200. 121) 周大成 : <中國口腔醫學發展簡史> 日本齒科醫學史學會會誌 8(3), p. 13, 1981. 122) 周大成 : <養生類纂>上 揭書에서 引用, 123)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下, 第五十五卷, p. 771. 124) 洪萬選 : <山林經濟> 第一卷, p. 71.

洲의 方法은 理解가 되나 流岩(洪萬選의 號)의 兇惡한 것을 만났을 때의 叩齒하는 것은 어떻게 說明해야 할지 모르겠다. 如何間에 옛 어른들은 다 급한 일, 兇惡한 일, 상서롭지 못한 일들을 이겨 나가는데도 齒牙의 神奇한 힘을 빌렸던 것 같다.

口齒의 美 : <人政> (崔漢綺, 1803~1879)에는 “口舌脣齒”¹²⁵⁾라 하여 人相學的인 觀察을 記述한 것이 있다. 즉 “입은 말하는 門이며 食事의 通路이다. 端正하고 목직하여 亡靈되고 虛誕한 말을 하지 않으면 口德이라 하고 남을 誹謗하고 말을 많이 하면 口賊이라고 한다.”라 前提하고 口의 模樣과 색깔이 그 사람의 運命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입술은 口의 城廓이니 두터워서 脣이 아니하며 色이 丹砂와 같이 붉으면 貴하고 또 福되고, 남빛과 같이 푸르면 災殃이 따르고 일찍 죽는다. 色이 검으면 病에 시달리고 쭈그러 들면 일찍 죽으며 脣이 弱하면 貧賤하다”고 하고 “혀(舌)의 模樣은 端正하면서 銳利하거나 길면서 크면 運數가 막히고, 크면서 脣거나 狹窄하고 작으면 모두 兇하다. 혀가 紅色이면 貴하고 黑色이면 賤하고 赤色이면 祿을 누리고 白色이면 가난하다. 혀가 뱀과 같이 날름거리면 毒을 품거나 남을 害치고, 혀가 끊어진 듯 멍푹하면 되는 일이 없다” 또, “이(齒)는 크면서 조밀하거나 길면서 곧거나 많으면서 희면 좋으며 단단하고 촘촘하면 長壽를 누리며 성글고 틈이 있으면 가난하며, 짙고 빠져 있으면 어리석으며, 말할 적에 이가 보이지 아니하면 富貴하고, 젊어서 이가 빠지면 長壽하지 못한다.”라고 口齒에 이어서 齒牙까지 占術과 같은 觀察法을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人政>의 “口舌脣齒”와 같이 人相學的인 觀察法으로 口와 齒牙의 模樣을 보아 좋은 것으로 調和를 이루고 있을 때 美人이라 稱讚한 것 같다.

朝鮮朝의 美人은 于先 박씨 같이 흰 이(齒)에 櫻桃알 같이 붉은 입술(皓齒丹脣)을 가장 아름다운 口齒로 본 것 같다. 古典小說에 나오는 美人 즉 <金鈴傳>의 東海龍王의 아들 海龍이 龍女를 본 瞬間의 모습을 “그 아름다운 姿態와 붉은 입술

에 흰 이며 갖은 愛嬌가 사람의 精神을 앗으니 가히 傾國之色이라”¹²⁶⁾한 것이나 <가르지기打命>의 主人公 雍女의 美貌를 “櫻桃脣 고운 입은 빛나는 唐彩 朱紅筆로 꼭 찍은 듯하고 細柳같은 가는 허리는 봄바람에 하늘하늘……”¹²⁷⁾이라 表現하고, <裊裊將傳>의 妓女 愛娘의 입도 “皓齒丹脣”¹²⁸⁾이라 했고, <李春風傳>의 春風의 마누라가 平壤 美人妓生을 “……繁華奢侈하고 粉壁紗窓 靑樓美色 丹脣皓齒 半開하고 淸歌二曲으로 嬌態하여 돈 많고 허탕한 者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라¹²⁹⁾ 說明하며 男便에게 注意를 주고 있다. 또 <玉丹春傳>에서는 金政丞의 아들 金진희가 平壤監査로 色鄕인 平壤에 당도 하여 많은 群衆의 歡迎을 받을 때 平壤 妓生을 보고 “버들잎¹같은 눈썹을 八字로 다듬고 玉 같은 연지 불은 三四月 初時節의 꽃송이 같고 박속 같은 잇속은 두 이(二)字로 빙그레 웃어 반만 벌리고서…어느 눈이 恍惚하지 않으랴”¹³⁰⁾라고 美女들의 아름다움을 感歎하고 있다. 즉 朝鮮朝의 小說 中 美人의 表現에서 皓齒丹脣은 必須 條件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丹脣은 現代 化粧法의 基礎이니까 누구나 願대로 되고 있으나 皓齒는 任意로 할 수 없음에도 不拘하고 요사이의 女人들도 흰 이(皓齒)를 願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朝鮮時代의 美人의 입술은 丹脣이요 齒牙는 박씨같다고 表現하여 詩歌에서까지 丹脣皓齒라고 稱讚하고들 있다.

즉 松江 鄭澈(1536~1593)의 아래와 같은 美人讚歌¹³¹⁾도 있다.

눈썹은 수나비 않은 듯
잇바디는 박씨 까 세운 듯
날 보고 당짓 웃는 양은
삼색 도화 미개봉이
하룻밤 빗기운에
반만 질로 핀 형상이로다
네 부모 너 삼겨낼 적에
날만 피라 삼기로다”라 불렀다.

125) 崔漢綺 : <人政> 第三卷, p. 121. 126) <金鈴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156. 127) <가르지기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216. 128) <裊裊將傳> 韓國古典文學全集4, p. 262. 129) <李春風傳> 韓國古典文學全集7, p. 226. 130) <玉丹春傳> 韓國古典文學全集8, p. 323. 131) 鄭 澈 : <美人讚歌> 韓國古典文學全集2, p. 535.

한편 警世說 (作家未詳)의 白髮歌¹³²⁾에는

“선수박씨 같던 이가 모락속이 되었으며
단사 같이 붉던 입술 외발고랑 되었구나”
라는 아름답던 젊은 時節과 늙은 悴한 모습을 그린 歌詞도 있다.

또 松江의 長詩調¹³³⁾에

모시를 이리 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가다가 한 가운데 뚝 끊어지웁거늘
皓齒丹脣으로 흠뻑며 감뻑며
纖纖玉手로 두 끝 마주잡아 바비쳐 이으리라
저 모시를 우리 님 사람 끈쳐 갈 제
저 모시처럼 이으리라.”

라는 美人의 戀情을 그린 詩도 있다.

즉 박씨, 皓齒丹脣이라는 表現이 中國의 <詩經>에 있는 “이(齒)는 박씨같고”라는 句節¹³⁴⁾과 <洛神賦>의 “밖에 붉은 입술은 밝고 안에 희고 깨끗한 이는 아름답다”¹³⁵⁾라는 表現을 우리도 그대로 젊은 女人의 아름다운 口齒의 모습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李鼎輔의 늙은 身勢의 슬픈 心情을 그린¹³⁶⁾

사람이 늙은 후에 또 언제 젊어 볼꼬
빠진 이(齒) 다시 나며 센머리 검을손가
세상에 不老草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라고 老人의 강한 表現으로 빠진 이, 센 머리를 들어 恨歎하고 있다.

즉 齒牙와 健康은 不可分の 사이인것 같다. <春香傳>에 李道令이 房子에게 말한것 中에서 “이 자식 네 모른다. 天皇氏는 一萬 八千歲를 살던 兩班이라. 이가 단단하여 목떡을 자섯거니와 時俗의 선비들은 목떡을 먹겠느냐……”¹³⁷⁾라 하면서 齒牙가 健康해야 몸도 健康하다는 例를 들어 天皇의

齒牙가 단단해서 18,000年 長壽 하셨다는 對話이다.

또 <稗官雜記> (魚叔權, 1545年頃)에 鄭湖陰의 律詩¹³⁸⁾ 첫머리에 “하늘이 이름난 집을 許興하여 德을 賦興하기를 穩全히 하였는데 몸에 모인 여러 福중에 齒牙가 먼저 차지 한다.”는 句節이 있다. 이 글은 “健齒五福”과 같은 意味의 말로 해석된다. 즉 “健齒五福”이라는 말은 醫書에도 非醫書에도 없는 말이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周邊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格言이 되어 있다. 五福이란 함은 <書經> 洪範篇에 “五福이란 첫째는 오래 사는 것, 둘째는 살림이 넉넉한것, 세째는 몸과 마음이 便安한 것, 네째는 德을 쌓는 것, 다섯째는 命대로 살다 죽는 것이라”¹³⁹⁾고 되어 있다. 요새 나온 辭典¹⁴⁰⁾에는 “壽, 富, 貴, 康寧, 多男”을 五福이라고 쓰여 있다. 위에 列舉한 것과 같이 韓國 사람들은 박씨같고 희고 깨끗한 齒牙(皓齒)가 튼튼하면 으뜸가는 福이라 하여 子息이나 富貴보다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黑齒(おはくろ)라는 風習이 있어 高麗末부터 朝鮮朝의 使臣들이 異常하게 여기어 記錄을 하고 있다. 즉 <海東諸國記> (申叔舟, 1417~1471)에 日本에 風習을 紹介하면서 “男女가 얼굴을 꾸미는 者는 모두 그 이(齒牙)를 검게 물들이고……”¹⁴²⁾라는 記錄과 <靑莊館全書> (李德懋, 1741~1739) <蜻蛉國記>의 風俗에는 “남자가 머리털을 자르고서 묶으며 短劍을 찬다. 婦人은 눈썹을 뽑고 이(齒)에 물들이고 이마에 눈썹을 그리며 등위로 머리털을 드리우고……”¹⁴³⁾라 되어 있고 또 <東槎日記> (任守幹, 1665~1721) 聞見錄에는 “娼女와 未婚女를 除外하고는 다 그 이(齒)에다 까맣게 칠(漆)을 하는가 하면 或은 눈썹을 뽑아 버리는 者도 있다.”¹⁴⁴⁾등 日本 사람들의 黑齒風俗에 많은 關心을 보여주고 있다.

132) 作家未詳 : <白髮歌> 韓國古典文學全集3, p. 279. 133) 李御寧 : <歲月이어 季節이어 10.> 韓國과 韓國人3, P. 329. 134) 周大成 : <詩經; 齒如 兜屣> 日本齒科醫學史學會誌8(3), p. 9, 1981. 135) 周大成 : <洛神賦; 丹脣外朗 皓齒內鮮> 上揭書 全頁. 136) 李鼎輔 : <英正時代의 詩調 496> 韓國古典文學全集, p. 437. 137) <春香傳> 韓國古典文學全集8, p. 20. 138) 魚叔權 : <稗官雜記> 卷四, 大東野乘 I, p. 537. 139) 李崇寧 : <五福> 書經 洪範篇, 韓國學大事典, p. 475, 1983. 140) 張三植 : <五福> 大漢韓辭典, 省文社, p. 49, 1964. 141) 山賀禮一 : <お齒黒の話> 大阪大學 同窓會會報 22-36號, 1981. 142) 申叔舟 : <海東諸國記> 海行總載 I, p. 98. 143) 李德懋 : <風俗> 蜻蛉國記2, 靑莊館全書 XI, p. 146. 144) 任守幹 : <東日記> 海行總載 續IX, p. 274.

朝鮮時代의 여러 叢書, 記錄 等과 詩調, 小說 등에 나오는 齒牙 또는 口腔領域에 關係되는 것을 整理해 보았다. 實學의 影響을 받은 朝鮮朝 中葉 부터 儒教를 崇尚하던 그當時, 人體解剖도 하였고 人體의 바른 名稱의 使用을 主張하는 한편 齒牙에 害로운 砂糖과 담배의 濫用을 忠告하면서 養齒法과 攝生法을 獎勵하고 民間에서의 齒科治療로 藥物治療法 또는 能熟한 齒痛治療法 등 實例의 記錄도 찾아 냈었다. 또 口齒의 模樣이 美人을 判가름한다고 보았으며 健康에는 齒牙가 으뜸이라는 우

리만의 固有思想이 모두에게 깊이 박히어 齒牙를 重要視하는 健齒五福의 思想이 아직도 우리 社會에 깊이 뿌리 박고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역시 中國의 影響을 많이 받아 우리의 것으로 生活化 되어 있으나 叢書나 記錄의 內容, 表現하는 方法, 몸에 익힌 習性 등에 같은 點도 많았다. 한편 中國의 醫學을 받아들인 우리의 醫書로 익힌 智慧가 生活手段으로 應用된 것인 만큼 理論이나 方法에도 큰 差異를 찾아 보기는 어려웠다.

<다음 號는 民俗信仰과 口腔領域의 民間信仰에 대하여 기술함 >